

앞으로 아들과 딸을 점지하는 은행나무



지정번호 칠곡-11-25-5

지정년도 1999

관리기관 칠곡

수령 960년

수고 30m

흉고둘레 7m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각산3길 113

36° 00' 42.78" N

128° 19' 20.69" E

각산리 은행나무는 칠곡이라는 지명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1018년(고려 현종 9년)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호수는 신라시대 사찰 대흥사에 위치하고 있다. 대흥사는 현재 사리탑과 절터가 남아 있다. 이 은행나무는 높이 30m, 가슴높이둘레 700cm, 수관폭 20m 정도의 큰 나무이다. 나무나이는 960년으로 추정된다. 줄기가 위로 치솟아 있으며 높이 3m 지점에서 갈라져 있다. 가지들은 잎이 많이 달려 있어 가을에 단풍이 들면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연출한다. 이 은행나무는 거대한 기둥 줄기가 한쪽으로 약간 꺾이면서 자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줄기가 비틀리면서 위쪽으로 자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정상적이며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은행나무는 나뭇잎이 나오는 상태에 따라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을 보호해 주거나 아이를 갖게 하는 신기한 나무의 이야기도 전한다. 옛날에 성주에서 통지미 마을(각산의 옛 이름)로 시집은 새색시가 있었다. 새색시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자 수시로 대흥사의 은행나무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소원을 빌었다. 어느 날 새색시 꿈에 은행나무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친정어머니로 바뀌면서 갈라진 잎과 붙은 잎을 주었다. 그러고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은행나무로 가서 떨어지는 잎을 꼭 잡아 보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은행나무로 변하였다. 새색시는 보름날에 꿈속에서 알려준 대로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을 잡아 보았더니 잎이 갈라져 있었다. 그 이후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아이를 갖고 싶은 여인들은 모두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은행나무를 찾아가서 떨어지는 은행잎을 잡았다. 그때 갈라진 잎을 잡은 여인들은 아들을 낳고, 갈라지지 않은 잎을 잡은 여인들은 딸을 낳았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 앞에서 하소연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어 소원 성취를 빌거나 남모를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럴 때마다 은행나무는 꿈에 가족으로 나타나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었다. 이 은행나무 인근에 비룡산이 있다. 등산객들로 붐비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산세가 좋다. 높지도 않아 가벼운 등산코스도 적당하다. 보호수 은행나무를 보는 즐거움도 더할 것이다.

